

적도기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28천 km ²	G D P	192억 달러 (2010년)
인구	70 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27,429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친서방개방정책	환율(달러당)	459.28 (2010년 평균)

-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본토와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는 카메룬, 가봉과 접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영토와 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동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의 석유 수출국으로 1995년에 수도 말라보가 위치한 비오코섬 근처에서 원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 개발에 힘입어 2004년까지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1979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오비앙 대통령은 32년 간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009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95.3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2016년까지 집권기반을 마련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1.3	21.4	10.7	5.3	0.9
재정수지 / GDP	23.4	19.2	15.4	-8.0	-1.4
소비자물가상승률	4.4	2.8	6.6	7.1	8.2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 1995년에 원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면서, 1997년과 2001년에 경제성장률이 무려 71%와 67%에 달하는 등 2004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5~06년에는 석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한 자리수의 경제성장률에 그쳤으나, 액화천연가스 공장이 가동되면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1.4%, 10.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 등의 비석유 부문이 27.6%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은 5.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도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원유 생산량 추이(천 배럴/일): 376(2005년) → 364(2006년) → 376(2007년) → 350(2008년) → 307(2009년)

□ 재정수지는 2009년에 적자로 전환

- 재정수지는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에는 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8%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에는 유가 회복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0.14%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원유 발견 이후 이른바 'Dutch disease'의 영향으로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인건비, 부동산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197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 근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경제 현상에서 유래함. 천연자원 수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천연자원 수출로 인해 외화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나,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임금상승과 소비급증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침체, 혹은 급락으로 전환하는 현상임.

- 2004~08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비석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국내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2%로 상승하였음.
- 2010년에는 유가 및 국제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8.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

-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 부문이 GDP의 91%, 총수출의 99%, 재정 수입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구조가 석유 부문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국제 유가 및 석유 생산량의 변동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가 유전 발견 이전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코코아의 생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석유산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음.
- 2009년부터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정부는 1999년부터 IMF의 권고에 따라 '후세를 위한 기금(Fonds de reserve pour les generations futures)'를 조성하여 매년 석유 수입의 0.5%를 적립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2009년 기준 원유의 확인매장량이 17억 배럴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의 산유국이며, 인구 (70만 명) 대비 석유 부존량이 풍부하여 '아프리카의 쿠웨이트'라 불리고 있음.
-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이 9.6조 ft^3 로 2007년 중반부터 LNG 공장이 가동되면서 2007~08년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음.
- 내륙에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보크사이트 등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

- 1995년 석유 발견 이후 세계 유수의 석유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동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2009년에 1,63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음비니(Mbini) 정유시설 등 신규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 시설에 투자 집중

- 정부가 1997년 이후 '적도기니 프로젝트(GE Proyectos)'를 추진하여 풍부한 오일 머니를 도로, 주택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된 오비앙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2020년까지 교육, 식량, 보건,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인프라 시설 및 비석유 부문에 대한 지속된 투자로 인해 최근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09년 인프라 투자 규모는 GDP의 46.7%에 달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추진

- 정부는 2007년에 중장기 계획인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채택하여 2020년까지 인프라 확대, 산업 다변화, 빈곤 퇴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6,270	7,886	10,556	3,237	4,761
경상수지/GDP	7.1	4.3	9.1	-16.0	-2.8
상 품 수 지	10,310	12,616	16,174	13,753	16,304
수 출	8,290	10,251	12,265	8,495	10,553
수 입	2,020	2,365	3,909	5,258	5,771
외 환 보 유 액	3,006	3,845	4,430	3,211	2,706
총 외 채 잔 액	278	234	240	766	832
총외채잔액/GDP	2.9	1.9	1.3	6.3	4.3
D S R	-	0.1	0.1	0.1	0.4

자료: IFS, EIU.

□ 경상수지는 2009년에 적자 전환

- 2010년을 기준으로 원유 및 관련 상품 수출액이 총수출의 99%에 달하는 등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유가 및 원유 생산량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6~2008년에는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의 적자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했음. 그러나 2009년에는 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상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적자 규모는 -16%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8%로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석유 개발 이후 국제적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4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양호

- 외채규모는 최근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 및 비석유 부문 투자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240백만 달러에서 2010년 83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4.3%로 낮은 수준임.
- 2010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9%를 유지하고 있고, DSR 또한 최근 수년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오비앙 대통령의 30여년 장기집권 지속

- 오비앙 (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대통령은 197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삼촌인 초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Francisco Macias Nguema)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32년 간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선거에서 오비앙 대통령은 득표율 95.37%로 승리하여 2016년까지 집권 기반을 마련하였음.
-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적도기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0년 부패지수에서 179개국 중 168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권 및 언론 탄압으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총선에서 적도기니민주당(PDGE)과 9개의 소수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파가 100석 중 99석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선거에서도 230석 중 다수를 차지하였음.

- 오비앙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이자 현 농업부 장관인 테오도린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병이나 쿠데타로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간헐적으로 독재정권에 대항한 움직임 발생

- 석유 자원의 이권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세력이 개입되어 오비앙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3월에 쿠데타를 시도하던 외국인 용병이 체포되었으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아들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체포되었음.
 - 2009년 2월에는 대통령궁을 공격한 무장괴한들과 정부군의 교전이 펼쳐지기도 하였음.

□ 기본적인 생활 기반 매우 취약

- 원유생산에 힘입어 2010년 1인당 GDP는 27,429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일부 계층만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대부분 국민은 실질적인 삶의 질과 생활 기반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 2010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적도기니는 169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
 - 총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생활비가 1일 2달러 미만이고,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44%의 인구만이 상수도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음.
- 전반적인 생활 지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비슷한 수준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임.

□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

- 석유개발 이후 인프라 건설이 급증하였으나, 숙련된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나이지리아, 카메룬, 레바논 등 인근 국가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실업 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가 산업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3. 국제관계

□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 오비양 대통령의 독재 및 인권 탄압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1995년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기업들의 투자가 유입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음.

□ 아프리카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2011년 1월의 아프리카연합 (AU) 정상회의에서 오비양 대통령이 AU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2011년 6월에는 수도 말라보에서 AU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아프리카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동국은 가봉, 카메룬 등과 함께 공동화폐인 세파프랑(CFA franc)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1유로 당 655.957CFA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있음.
- 2012년 가봉과 아프리카컵 축구대회(CAN)을 공동 개최할 예정임.

□ OECD 신용등급 7등급 유지

- 2011년 1월에 개최된 OECD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 회의에서는 석유 개발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동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정량등급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체율이 지속되고 있어 7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9년 9월 14일 (북한과는 1969년 9월 20일)

□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6)

<표 4> 한·적도기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13	16	11	기타기계류, 회전기기, 섬유및 화학기계
수입	834	700	755	천연가스, 목재류
합계	847	716	766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0년 대 적도기니 수출은 기타기계, 회전기기, 섬유및화학기계 등을 중심으로 1,098만 달러를, 수입은 천연가스, 목재 등을 중심으로 7.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 8월에 오비앙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 협력, 인프라 건설 협력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적도기니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등 양국간 협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국에서 상하수도 사업, 가스 분야 진출, 석유화학 플랜트, 항만 등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해외직접투자 (2010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1건 6,242만 달러

V. 종합 의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위의 산유국인 적도기니는 1990년대 중반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시작된 이래 두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최근 석유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2010년에는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음.

석유 부문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한자리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오비앙 대통령은 1979년 쿠데타 이후 32년간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2009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승리하면서 2016년까지 집권기반을 마련하였음.

오비앙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갑작스런 지병이나 쿠데타 발생시에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됨

- 오랜 독재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석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생활 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음.

조사역 이 현 정 (☎02-3779-5724)

E-mail: lhj0316@koreaexim.go.kr